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문화행사가 사찰과 공연장에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축문화행사는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인지 연극, 무용, 미술 전시회, 사진전 등 어느때보다도 더 붐을 일으키고 있다.

봉축문화행사 어느때보다 '풍성'

'연극 비구어' '관세음보살' '영화미소' '위파사나' 주제 창작무용 발표회 백련·도솔천 등 스님 사진전도 열려

불교극단 바람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비구어'를 상연한다. 노 비구승의 구도 과정을 조명한 이 작품은 비구승의 대승적 실천행각을 통해 허물어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수행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상과 포교상을 제시해 준다. 특히 연극 '비구어'는 주제를 섬세하고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오장면마다 불교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범종과 법고, 목어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02)722-5708

부산 삼광사도 작가 정찬주씨의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관세음보살'이 17·18일 양일간 삼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이운택씨의 연출로 무대에 올려진다. (051)808-7111

3일부터 12일까지 명동 창고극장에서는 나무꾼이 행자를 거쳐 고승이 되는 과정을 그린 연극 '영화미소'를 선보인다. 진관스님(법호문회)에 의해 진행된 금마련회의회 공동의장이 20년만에 각본을 쓴 작품으로 마당놀이 형식으로 꾸며진다. (02)775-0535

'위파사나'를 주제로 한 이색 무용 공연도 가볼만하다. 윤덕경 교수(청주 서원대 무용과)가 1989년 창단한 '윤덕경무용단'은 15·16일 양일간 충북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고



노 비구승의 수행과 동생제도 과정을 조명한 연극 '비구어'의 한 장면.

윤덕경 교수가 공동무용의 등장하고 화려한 격조가 돋구는 태평무를 추고 있다.

요한 시간, 깨달음-위파사나'를 주제로 창작무용발표회를 갖는다. 윤 교수는 이번 공연에서 위파사나 관법을 총사위에 녹여,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현대인들이

에게 '느림의 미학'을 몸짓언어로 무대위에 펼쳐보인다. (043)299-8950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심청의 효심을 주제로 한 '회심곡 2002'가 8일부터

12일까지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회심곡의 대가인 경기명창 김영림씨의 애절한

면서도 맛깔스런 회심곡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02)786-8886
양평 법왕정사에서는 5월 '제1회 소라산 문화축제'를 연다. 하우 스님의 법고로 시작되는 이번 축제에는 타악기 연주가 김대환 교수의 타악연주, 무세종(前 중앙대 교수)씨와 무용가 무나미씨의 전위극 '응작여사관(應作如示觀)' 등이 펼쳐진다. 특히 19일까지는 쌀알에 <반야심경>을 새겨놓은 작가 김대환씨의 '미각전'이 마련된다. (031)771-7745

불교사진연합회는 총무로 후지포토 싸움에서 4일까지 불교사진전시회를 연다.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암스님(선암사)의 '백련'을 비롯해 정우스님(양재동 구룡사 주지)의 '실크로드', 김우영 불교사진연합회장의 '도솔천' 등 50여 작품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에는 4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시상식과 함께 시낭송회를 마련한다. (02)308-9520 또 박관수 목아박물관의 목조각 전시회도 '불교예술 40년전'이란 주제로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법원사내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02)733-5322 정명스님 '연꽃전'도 17일부터 19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 가면 감상할 수 있다. 20년동안 탐(馬) 그림만 그려온 작가 정호문씨의 '말이야기전'은 공평아트센터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전시된다.



김홍기 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요 며칠 수원 봉녕사 묘엄 스님의 수행이야기가 담긴 '회색 고무신'을 읽었다. 그 중에 성철스님이 사발 출가하는 어느 행자의 먹살을 잡고 "너는 이제 머리를 깎았으니 속인도 아니고, 아직 제를 받지 않았으니 중도 아니다. 그럼 너는 대체 무엇인가? 퍼뜩 일러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온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쳐들어와, 머리 쓰지 말고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한마디 일러보라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책을 덮고, 나 같은 뉘라고 대답할까 하고 생각했다. 먹살 집힌 당사자는 놀랍고 무서웠겠지만, 큰스님의 다시없는 자상한 가르침은 인상적이다. 한국 조계종의 연원인 임제원 선사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는 황벽회은 선사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방의 수좌인 목주스님이 방장스님께 가서 불법의 근본 중지를 물어보라고 권했다. 임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장스님은 방망이로 그를 내리쳤다. 목주스님은 투덜대는 임제에게 다시 가서 질문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번에도 임제는 얼어있었다. 목주는 세 번째로 권유했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연속되는 무의미한 방망이질에 실망한 임제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작별인사를 드리고 가라는 목주스님의 권유에 임제는 방장스님을 찾아가

임제의 '참사람'

다. 황벽은 대우선사에게 가서 지도 받으라고 했다. 임제는 대우선사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하게 고했다. 대우는 황벽이 노파실에 서 그렇게 친

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흥을 보느냐고 임제를 나무랐다. 임제는 이 말을 듣고 흥연히 깨달았다. 임제의 깨달음은 자신의 진면목인 '차별 없는 참사람(眞位眞人)'의 발견이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기 자신이 되었던 것이다. 임제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마다 진심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는 소신으로 살아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각이 생기는 것 같다. 우주는 한량없이 크지만, 중심이 없으면 허무하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주의 마음이 되어 중심을 잡아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우주는 보지 못한다. 나는 본다. 우주는 나를 통해 본다. 우주는 듣지 못한다. 나는 듣는다. 우주는 나를 통해 듣는다. 우주는 못 느낀다. 나는 느낀다. 우주는 나를 통해 느낀다. 우주는 마음이 없다. 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우주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우주에게 내가 마음이 되어주어서, 우주가 나를 통해 느끼고 또 스스로가 우주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주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문학평론가

개진 기와조각에 불보살

귀일 스님, 15일부터 기와그림전 열어

개진 기와조각에 불보살을 장엄한다. 기와에 그림을 그리는 귀일스님(안동 봉정사 지조암)이 15일부터 28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 화랑'에서 '기와 그림전'을 갖는다.

귀일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귀면(귀귀를 붙여내는 도깨비 얼굴)'을 비롯해 '동중', '사리탑',

귀면 등 60점 선보일다. '비천상', '불보살' 등 60여점을 선보인다.

기와 그림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장식해왔다. 주로 잡귀를 물리치는 도깨비나 불교의 호법신장들이 화공들 손에 그려져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퇴락되었다.

첫 전시회를 갖는 귀일 스님은 "3년전부터 기와그림을 공부하며 기



귀일 스님이 그려놓은 도깨비 얼굴을 그린 '귀면도'

와라는 특수한 재료와 잘 맞는 그림 소재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직업회가는 아니지만 버려진 기와조각에 불성을 불어 넣는다는 마음으로 작업해왔다"고 설명한다.



인도의 석충을 재료로 그린 수증스님의 '연꽃'



김장건의 유화 '우리들의 이야기'

'수증스님과 김장건 초대전'이 4일까지 서울 신정동 예가작 갤러리에서 열린다. 두 작가 모두 선(禪)적이

고 불교적인 세계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지만 표현방식은 각기 다르다. 수증스님은 한지에 먹으로 그린 연꽃을 비롯한 동양화풍, 김장건씨는 반구상적 유희를 선보인다. 1층 수증스님의 전시실에는 인도의 석충(물가뭇구)과 먹물 재료로 그린 수묵화 15작품이 전시된다. 대부분 연꽃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김장건의

수증 스님·김장건 초대전

4일까지, 禪·불교적 세계 소개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조 • 정사조롱 및 손잡이대

통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 ▶ 불계대원 고구전구, 인계전구(장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알라이트가 6개(특 알라이트)로 빛이 밝고 오래 밝고 오래 유지된다.

불제 견전지용 조

- ▶ 정사조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등)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평평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들에 책임 있습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 2266-2634
구입문의 (02) 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결포동 389-4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명초로서 옛부터 거의 반병초치의 효험이 있는 명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경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약효를 강화해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면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회를 타지 않고 어리가 좋아지며 저혈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도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부처적 효험이 있다.

향약다운은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樂道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저지신 功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리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곁길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에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眞摯 仁愛에 주시길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 山蔘